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및 수면

김현숙¹ · 최정분² · 조미연¹

이화여자대학교 박사과정¹, 경기도교육청 체육보건급식과²

The Subjective Stress, Depression, and Sleeping of Mothers with Children in Special Education of Element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Hyun-Suk Kim¹ · Jung-Boon Choi² · Mee-Yeon Cho¹

¹PhD Course, College of Nursing Science, Ewha Womans University, ²Department of Health in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dentify stress, depression and sleeping of mothers with children who have received the special education in the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and to find out the relationship among stress, depression and sleeping. It will be provided as the basic information for development of nursing intervent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carried out from November 18th to November 27th, 2009 through questionnaire about the stress, the depression and the sleeping. The subjects of investigation were 94 mothers with children who have received the speci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Results: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the psychological and physical stress of the mothers;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and the depression;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stress and the sleeping; and inverse correlation between the depression and the sleeping significantly in statistics ($p < .001$). Mother group in elementary school has mild depression and the other variables in all groups of mothers are included in normal range.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do the comparative study for stress, depression and sleeping of mothers with children who have received the special education in elementary school, middle and high school and to make the research for the development of optimized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reducing depression for the subjects.

Key Words: Stress, Depression, Sleep, Special education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핵가족화와 저 출산의 변화에 따라 자녀에 대한 관심은 증가하였으나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사례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2009년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75,187명으로 2008년보다 3,703명 증가하였고 영유아를 제외한 전공과

를 포함한 초등·중등·고등부는 71,696명으로 보고(특수교육통계, 2009) 된 것을 고려할 때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OECD (2000)에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 대비 특수교육대상 비율을 0.99%로 밝혀 OECD 주요국가에 비해 낮은 것으로 제시하였지만, 이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기준 축소와 특수교육대상자에 선정되는 것을 기피하여 나타난 결과로(특수교육통계, 2009),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을 암시하는

Corresponding author: Jung-Boon Choi, Department of Health, Ky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15 Worldcup-gil, Jangan-gu, Suwon 440-702, Korea, Tel: 82-31-249-0286, E-mail: cjb2010@goe.go.kr

2010년 4월 22일 접수, 2010년 6월 21일 채택

것이다. 특히, 방과 후 독립적인 사회활동을 하는 일반교육 대상자와는 달리 정신적·신체적 어려움이 있는 특수교육 대상자는 가정에서 어머니가 주된 돌봄을 제공하게 되어, 선행연구(윤선아와 나수현, 2005; 정소영과 조결자, 2007)에서 알 수 있듯이 어머니의 건강상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즉, 자녀의 성장과 발달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자녀의 장애는 어머니에게는 위기로 직면하게 되어 부모로서의 좌절 및 절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가족구성원의 건강관리에 중심역할을 해야 하는 어머니에게는 자녀가 학령기에 이르면서 더욱 확대되어 자녀의 장애라는 선행 조건이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와 부담으로 작용하여 자신의 건강에 위해를 남기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의 건강에 국한되지 않고 자녀와 가족전체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알고리즘이 되어 악순환을 겪게 될 것으로 초·중·고 특수교육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개입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지금까지 특수교육자녀의 부모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서 자녀의 학교생활 등의 요인에 의해 정상아의 부모보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게 되고(배혜영, 2009; 심미경, 1997; 정소영과 조결자, 2007), 우울 증상(윤선아와 나수현, 2005) 및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등(윤선아와 나수현, 2005), 장애 아동의 부모는 스트레스, 우울, 수면문제가 상호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김미라와 정남운, 2006).

스트레스는 압박감이나 근육의 긴장과 같은 신체적 반응처럼 정신과 신체간의 관계에서 예측할 수 있는 흥분 상태로(고경봉, 2002), 특수교육자녀의 어머니는 친척과 이웃 등으로부터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스트레스는 어머니의 적극적 대처에도 감소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심미경, 1997). 더욱이 장애 아동이 학령기에 접어들면서 자녀의 막연하고도 부정적인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문제로 인해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윤선아와 나수현, 2005; 김미라와 정남운, 2006).

우울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할 때 이르게 되는 것(권석만, 2008)으로,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자녀가 학령기에 접할수록 양육에 대한 부담, 무기력감, 낮은 자존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김미라와 정남운, 2006). 또한 장애 아동의 어머니는 장애 아동의 돌봄과 관련된 정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없을 때 대인관계의 단절이 초래되어

사회적 고립이 된다(윤선아와 나수현, 2005). 이러한 사회적 고립은 우울증을 유발하기 쉬운 것으로서(황미경과 백성수, 2009), 사회적 고립감을 경험하게 되는 특수교육대상 자녀를 돌보는 어머니에 대한 우울증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진다.

수면장애는 피곤, 혼돈, 집중장애 등의 사회 심리적인 현상부터 현훈, 지남력장애, 감각장애 등 다양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하여 생리변화, 행동장애, 정신장애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삶의 질을 낮추고, 우울증의 이환율과 사망 위험률을 증가시킨다(김수지 등, 2009). 김미라와 정남운(2006)은 자녀의 장애로 인해 파생되는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불안으로 인해 자녀의 초등학교 진학에 즈음하여 어머니의 수면 문제가 발생한다고 밝혀, 장애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중·고등부의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수면의 질을 조사해 보는 것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연구결과 특수교육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돌봄의 주체가 되는 어머니의 건강은 자녀의 돌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고, 어머니의 건강은 자녀의 학령기 전·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가족의 유지, 해체 등 가족의 응집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자녀의 신체적 성장과 함께 심리·행동 반응이 좀 더 구체화 되는 시기인 중·고등부의 자녀도 어머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따라서 어머니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특성, 자녀와 가족 건강과의 상호작용 등에 대한 연구와 함께 이에 따른 효과적인 중재를 위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확인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여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간호중재개발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3. 용어정의

1) 특수교육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특수교육관련서비스의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의미하며(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본 연구에서는 K 지역의 통합반이 있는 초·중학교 및 초, 중, 고 통합반이 있는 특수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상관관계 연구이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경기지역의 통합반이 있는 일반 초등학교 12교, 통합반이 있는 일반 중학교 3개교, 초·중·고 통합 특수학교 2개교를 임의 선정하여 특수학급에 자녀를 등교시키고 있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였다. 자료수집은 사전교육을 받은 연구보조원이 직접 대면하여 설문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의문사항은 연구보조원에게 질문하도록 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의사소통에 장애가 없고, 의식이 명료하며, 본 연구목적에 이해하고 참여를 허락한 총 104명의 대상자 중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부적절한 10명의 자료를 제외한 94명을 최종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한 설문지에 연구참여자의 서면동의서를 첨부하여 연구참여 중 언제든지 중단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로 인한 어떤 불이익도 없다는 것을 알렸다. 또한 설문 조사의 결과는 연구와 학문증진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이며 본인의 자유로운 참여의사에 따라 자료수집에 참여한다는 동의서를 받았다.

3. 연구도구

1) 스트레스

박순영(1999)의 스트레스 측정도구이며 두 개 영역별(심리적 스트레스 15문항, 신체적 스트레스 15문항) 총 3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영역별 스트레스 점수는 0점에서 3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0~4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스트레스 수준의 구분은 0~5점은 평균치 이하로 특별히 문제가 없는 정도, 6~12점은 평균수준, 13~19점은 약간 주의가 필요한 경우, 20점 이상은 경고수준으로 상당한 주의 또는 의사와 상의가 필요한 정도로 분류하였다. 도구 개발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신체적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89$, 심리적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88$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93$, 신체적 스트레스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2) 우울

우울은 Radloff (1977)가 개발한 Center for Epidemiologic Studies Depression (CES-D) Scale을 Shin (1992)이 번역, 역 번역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CES-D Scale은 우울증후군의 역학적 연구를 위해 개발한 도구로 지난 한 주 동안에 경험한 우울을 측정하며 일반인들의 우울 증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다. 본 도구는 총 20문항으로 0점에서 3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로 총점 0~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정도가 심한 것이다. CES-D점수가 10점 미만인 경우를 정상범위, 10~19점은 경증 우울증, 20점 이상은 중증 우울증으로 해석하였다. Radloff (1977)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4 \sim .90$ 이었고 Shin (1992)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9$ 이었다.

3) 수면

오진주 등(1998)이 개발한 수면측정도구를 이용하였으며 본 도구는 총 15문항으로 1점에서 4점까지의 Likert 척도로 점수범위는 15점에서 6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면이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도구개발 당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75$ 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78$ 이었다.

4.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실수와 백분율을 구하

였고,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은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구하였고,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비교는 one-way ANOVA, Kruskal-Wallis H test를 이용하였으며,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 사이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K 지역의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제한하여 연구결과를 확대하고 일반화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로 결혼상태, 만성질환 유무, 만성통증 유무, 현재 앓고 있는 질환, 자녀의 학년 등을 조사하였다. 결혼 상태는 기혼자가 91명(96.8%)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성질환이 있는 대상자는 8명(8.4%)으로 비가역적인 질환이 없는 대상자가 많았다.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통증이 없는 대상자는 78명(80.8%)으로 나타났으며, 요통이 있는 대상자는 9명(18.%)으로 요통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다. 초·중·고 자녀에서는 초등학교생의 자녀를 돌보는 대상자가 58명(61.7%)으로 가장 많았다.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은 표 2와 같다. 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 8.79 ± 6.40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5점까지였다.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9.05 ± 6.74점, 중등부인 경우 8.27 ± 6.07점, 고등부인 경우 8.53 ± 5.85점으로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F=1.13, p=.879)가 없었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 8.61 ± 6.91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41점까지였다.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8.77 ± 7.69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8.45 ± 4.95점, 고등부인 경우 평균 8.20 (± 6.59)점으로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신체적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F=.05, p=.954)가 없었다.

우울은 평균 9.12 ± 6.34점으로 최소 0점에서 최대 27점까지였다.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10.14 ± 6.85점, 중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94)

구분	분류	n (%)
결혼상태	기혼	91 (96.8)
	미혼	2 (2.1)
	이혼	1 (2.1)
만성질환	예	8 (8.4)
	아니오	86 (91.6)
만성통증	예	16 (19.2)
	아니오	78 (80.8)
질환	고혈압	3 (6.3)
	당뇨	1 (2.1)
	디스크	3 (6.3)
	요통	9 (18.9)
	두통	7 (14.7)
	불면증	5 (10.5)
	피부질환	1 (2.1)
초·중·고 자녀	초등학생	58 (61.7)
	중학생	22 (23.4)
	고등학생	14 (14.9)

부인 경우 평균 6.41 ± 4.26점, 자녀가 고등부인 경우 평균 9.20 ± 5.99점으로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에는 유의한 차이($\chi^2=4.84, p=.089$)가 없었다.

수면은 평균 48.02 ± 7.05점으로 최소 26점에서 최대 59점까지였다.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48.30 ± 7.40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48.96 ± 6.45점, 고등부인 경우 평균 45.60 ± 6.40점으로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수면에는 유의한 차이(F=1.12, p=.329)가 없었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수면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 사이의 관계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수면 사이의 상관관계는 표 3과 같다.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신체적 스트레스는 유의하게 높아지며($r=.564, p<.001$), 우울도 유의하게 심해지고($r=.705, p<.001$), 수면은 유의하게 나빠지는 것($r=-.506, p<.001$)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신체적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우울은 유의하게 심해지고($r=.479, p<.001$), 수면은 유의하게 나빠지며($r=-.439, p<.001$), 우울이 심해질수록 수면은 유의하게 나빠지는 것($r=-.395, p<.001$)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의 비교

(N=94)

구분	분류	M±SD	최소값	최대값	Total			
					M±SD	F or χ^2	p	
스트레스	심리적	초등학생	9.05±6.74	0	24	8.79±6.40	.13 ¹⁾	.879
		중등학생	8.27±6.07	0	20			
		고등학생	8.53±5.85	1	25			
	신체적	초등학생	8.77±7.69	0	41	8.61±6.91	.05 ¹⁾	.954
		중등학생	8.45±4.95	2	23			
		고등학생	8.20±6.59	1	20			
우울	초등학생	10.14±6.85	0	27	9.12±6.34	4.84 ²⁾	.089	
	중등학생	6.41±4.26	1	18				
	고등학생	9.20±5.99	2	23				
수면	초등학생	48.30±7.40	26	59	48.02±7.05	1.12 ¹⁾	.329	
	중등학생	48.96±6.45	32	59				
	고등학생	45.60±6.40	34	55				

1) One-Way ANOVA test; 2) Kruskal-Wallis H test.

<표 3>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및 수면 사이의 관계

(N=94)

변수	심리적 스트레스	신체적 스트레스	우울	수면
심리적 스트레스	1	.564***	.705***	-.506***
신체적 스트레스		1	.479***	-.439***
우울			1	-.395***
수면				1

***p<.001.

고찰

특수교육대상은 증가추세에 있지만 우리 사회의 전통적 분위기와 특수교육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특수교육대상자녀를 돌보는 일차적인 책임을 어머니에게 주어질 것이며, 이는 어머니의 건강문제, 가족의 문제로 알고리즘이 형성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평균 8.79점으로 대상자 모두 평균 수준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9.05점, 중등부인 경우 8.27점, 고등부인 경우 8.53점으로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자의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체장애 아동을 가진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

구에서(정재권, 2009), 중등부 자녀를 둔 어머니가 느끼는 양육스트레스가 초등부, 고등부 자녀를 가진 부모 보다 유의하게 컸다는 결과와는 상이하다. 본 연구결과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부모가 느끼는 심리적 충격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녀의 미래를 염려하고 수용하는 단계에 이르게 된다는 설명(Drotar, Baskiewicz, Irvin, Kennell, & Klausm, 1975)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도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만큼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의 한계로 자녀의 성장에 따라 발생가능한 문제가 초등부에서의 문제보다 좀 더 확대 가능한 중·고등부에 대한 연구가 없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중등부 일반학교자녀의 어머니는 사춘기 자녀의 심리적 압박 등으로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보다 스트레스를 크게 받는 것(최정미와 우희정, 2004)으로 밝혀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와 비교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신체적 스트레스는 평균 8.61점으로 대상자 모두 평균수준의 신체적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가 초등과정인 경우 8.77점, 중등부인 경우 8.45점, 고등부인 경우 8.20점으로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의하지 않지만 신체적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미라와 정남운(2006)이 장애아동의 어머니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두통, 소화불량, 가슴 두근거림 등의 신체적 증상을 경험한다는 보고를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가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한 불안 정도의 파악과 함께 이들의 신체적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머니가 느끼는 신체적 스트레스는 자녀의 신체적·정신적 성장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선행연구의 제한으로 본 연구결과의 비교 한계가 있어 이후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비교되어야 할 것이다.

우울은 평균 9.12점으로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10.14점, 중등부인 경우 6.41점, 고등부인 경우 9.20점으로 나타나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경증 우울을 보이고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는 우울경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상자의 우울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Beck의 우울척도에 의한 측정에서(박혜정, 2007) 뇌성마비 초등 자녀의 어머니가 BDI 20~25점으로 보통 정도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와 같은 것이며, 발달장애 아동을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고정선, 2008)의 BDI에서 연구대상의 61.8%가 우울상태였으며 40.5%는 우울증 진단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특수교육대상 자녀의 부모 434명을 대상으로 한 임현승(2004)의 연구에서 특수교육대상자녀의 장애 정도와 부모의 우울정도사이에는 상관성이 없었으나 부모는 경증우울(CES-D 평균 19점)의 경향을 보여 본 연구에서 초등자녀의 어머니에게서 경증 우울로 나타난 결과와는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둔 부모의 우울은 외적인 중재 여부에 따라 가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고등부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의 한계가 있다. 또한 김교연(2009)은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녀의 생애주기와 우울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우울은 자녀가 속한 생애주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회적 지지나 자녀발달에 대한 결과기대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자녀의 부적응 행동은 어머니의 우울 정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혔다. 이에 본 연구에서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에게서 우

울 경향이 중고등부에 비해 유의하지 않지만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것은 자녀의 학교 적응의 시작단계에서 자녀의 학습 등과 관련되어 발생 가능한 사건의 불확실한 예측으로 나타난 결과일 것이다. 이는 어머니의 우울이 자녀의 적응에 따라 우울정도가 다르다는 보고(김교연, 2009)와 같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의 선행연구(임현승, 2004; 김교연, 2009)에서 제시하였듯이 장애아동 부모의 우울은 외적인 중재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초등부 자녀의 부모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이에 따른 중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연구가 없어 비교의 한계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도 초등부 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 점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어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경험하는 중·고등부에 대한 추 후 비교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수면은 평균 48.02점으로 평균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48.30점, 중등부인 경우 48.96점, 고등부인 경우 45.60점으로 중등부 자녀를 둔 어머니가 유의하지 않지만 수면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 아동의 초등학교 입학과 관련된 스트레스로 수면의 문제가 나타난다고 보고한 김미라와 정남운(2006)의 연구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초등부자녀의 어머니도 평균의 수면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수면을 문제로 한 연구가 한정적이어서 비교의 한계가 있어 이후 다양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가 스트레스와 우울점수에서 유의하지 않지만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 보다 크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장애 자녀의 부모는 자녀의 장애로 인해 겪게 되는 스트레스, 우울 등이 시간의 흐름과 자녀의 적응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선행연구와 차이가 있었다(김교연, 2009; Drotar et al., 1975).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는 순상관관계,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순상관관계, 심리적 스트레스와 수면은 역상관관계, 신체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순상관관계, 신체적 스트레스와 수면은 역상관관계, 우울과 수면은 역상관관계가 있었다. 즉 이러한 연구결과는 대상자가 자녀로 인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을 경우 신체적 스트레스는 높아지며, 우울 점수의 증가와 함께 수면은 나빠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8세 아동 대상의 연구에서 자녀와의

에착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어머니의 우울 정도는 낮아지고 수면 문제는 적은 것으로 밝힌 선행문헌(이경숙, 박미현, 2007)의 논지를 재확인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대상자가 느끼는 스트레스, 우울 점수는 유의하지 않지만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에서 차이가 있다는 결과가 제시되어 대상자의 간호 중재에서 고려되어야 요인을 구체화 하였다. 또한 대상자의 스트레스가 우울과 수면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선행연구에서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에 대한 결과가 없어 본 연구와 비교할 수는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즉 대상자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에 대한 반복 연구가 요구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 경증 우울로 나타난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를 제외한 모든 대상자가 스트레스, 우울, 수면에서 모두 정상범위로 밝혀졌다. 하지만 신체적·정신적 성장을 하게 되는 중·고등부 자녀의 어머니에 대한 선행연구의 부족으로 비교의 한계가 있어 추후 이에 대한 근거가 제시될 수 있는 다양한 연구와 중재가 요구된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의 목적은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파악하고 이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2009년 11월 18일부터 27일까지 K지역의 17개의 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의 어머니 94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스트레스, 우울, 수면을 조사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4.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을 산출하였으며, one-way ANOVA, Kruskal-Wallis H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심리적 스트레스는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9.05±6.74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8.27±6.07점, 고등부인 경우 평균 8.53±5.85점 이었으며,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심리적 스트레스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F=.13, p=.879).

둘째, 대상자의 신체적 스트레스는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8.77±7.69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8.45±4.95점, 고등부인 경우 평균 8.20±6.59점 이었으며,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신체적 스트레스에는 유의한 차이(F=.05, p=.954)가 없었다.

셋째, 대상자의 우울은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평균 10.14±6.85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6.41±4.26점, 고등부인 경

우 평균 9.20±5.99점으로 초등부 자녀의 어머니가 경증 우울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우울에는 유의한 차이($\chi^2=4.84, p=.089$)가 없었다.

넷째, 대상자의 수면은 자녀가 초등부인 경우 48.30±7.40점, 중등부인 경우 평균 48.96±6.45점, 고등부인 경우 평균 45.60±6.40점이었으며, 자녀의 초·중·고 여부에 따른 어머니의 수면에는 유의한 차이(F=1.12, p=.329)가 없었다.

다섯째, 심리적 스트레스와 신체적 스트레스는 순 상관관계, 심리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순 상관관계, 심리적 스트레스와 수면은 역 상관관계, 신체적 스트레스와 우울은 순 상관관계, 신체적 스트레스와 수면은 역 상관관계, 우울과 수면은 역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1). 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초·중·고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와 초·중·고 일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 사이의 스트레스, 우울, 수면에 대한 추후 비교 연구가 요구된다.

둘째, 초등부 특수교육자녀를 둔 어머니의 우울정도의 완화를 위한 중재 개발 연구가 요구된다.

참고문헌

- 고경봉 (2002). **스트레스와 정신신체의학**. 서울: 일조각.
- 고정선 (2008). 발달장애 아동 어머니의 양육부담감,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관계연구: 정신지체와 자폐아동 어머니를 중심으로.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9(1), 1-17.
- 권석만 (2008). **우울증**, 서울: 학지사.
- 김교연 (2009). 지적 장애인을 자녀로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와 돌봄 통제감 및 우울: 장애인 생애주기의 영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3), 81-107.
- 김미라, 정남운 (2006). 장애아동 어머니가 초등학교 통합직전 느끼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8(1), 201-216.
- 김수지, 고성희, 김경희, 김영숙, 민소영, 서문숙 외 (2009). **원리 및 실무중심의 정신간호학(8판)**. 서울: 수문사.
- 박순영 (1999). ??????. 광주광역시 서구 보건소식지, 11(84) ???-???.
- 박혜정 (2007). 뇌성마비 아동 어머니의 우울에 관한 인지-행동미술 치료사례연구. **재활심리연구**, 14(1), 57-79.
- 배혜영 (2009). 자폐 범주성 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 요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1), 137-157
- 심미경 (1997). 장애아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대처유형, 삶의 질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7(3), 673-682.

- 오진주, 송미순, 김신미 (1998). 수면측정도구의 개발을 위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28(3), 563-572.
- 윤선아, 나수현 (2005). 전반적 발달장애아동 어머니의 스트레스와 대처에 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연구**, 4(1), 73-101.
- 이경숙, 박미현 (2007). **한국의 cosleeping 양육에 관한 예비연구: 어머니 요인을 중심으로**. 2007 한국심리학회 연차학술대회, 388-389.
- 임현승 (2004). **사회적 지지가 장애아동을 둔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회 2004년도 춘계학술대회, 639-656.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2008, February 29). **국가법령정보센터**. Retrieved April 10, 2010, from <http://law.go.kr/LSW/lInfoP.do?lsiSeq=84755#0000>
- 정소영, 조결자 (2007). 정상아와 자폐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가족기능에 대한 비교. **정신간호학회지**, 16(3), 258-266.
- 정재권 (2009). 지체장애아동 어머니들의 양육스트레스와 대처행동.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0(4), 245-265.
- 특수교육통계 (2009, June 30). **교육과학기술부**. Retrieved April 10, 2010, from http://www.index.go.kr/egams/stts/jsp/potal/stts/PO_STTS_IdxMain.jsp?idx_cd=1544
- 최정미, 우희정 (2004). 초·중학교 아동의 우울과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우울과의 관계.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6(2), 73-84.
- 황미경, 백성수 (2009). 사회적 고립감으로 인한 우울증과 운동의 긍정적 효과. **스포츠과학리뷰**, 3(1), 15-24.
- Drotar, D., Baskiewicz, B., Irvin, N., Kennell, J., & Klausm, M. (1975). The adaption of parents to the birth of an infant with a congenital malformaion: A hypothetical model. *Pediatrics*, 56(5), 710-717.
- Radloff, L. S. (1977). The CES-D Scale: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 Psychol Meas*, 1(3), 385-401.
- Shin, K. R. (1992). *The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atology in Korean-American Women in New York C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achers College, Columbia University, New York.